

방법을 고안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삼하14:1-17

배경

롬15:4,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

구약에는 약 15개의 비유가 나온다. 비유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이야기,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것이다. 삼하14의 비유는 구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비유 ★★★

삼하11장: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야

삼하12장: 나단의 비유와 다윗의 회개, 10절 용서는 받되 같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1. 아이의 죽음, 2. 암논의 죽음

삼하13장: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압살롬의 도망, 그술로 3년 동안 도망감(13:37-38)

날마다 아들을 보기를 원함, 애곡함(37, 39)

삼하14장: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

다윗의 딜레마: 다윗은 왕이요 동시에 아버지였다.

왕으로서는 율법을 따라 공의를 집행해야 한다. 아버지로서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

요압은 다윗의 심중을 읽었다. 그러나 그냥 데려오라고 할 수 없었다.

드고아의 여인의 케이스, 두 아들

11절의 약속까지 이름, 다윗이 여인에게 무려 3번이나 약속함

드디어 여인이 비유를 실제 상황에 적용함

다윗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 여인의 아들에게 예외가 적용이 된다면 압살롬에게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다(13).

14절: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암논의 경우는 앞질러진 물과 같다.

압살롬에게 공의를 행한다고 해도 암논을 살릴 길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방법을 고안해서 자신의 내쫓은 자가 아주 쫓겨나게 하지 않으신다. 이에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다. ★★★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다 죽는다(전8:8). 영웅호걸이 따로 없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사망이 임하였다.

마귀가 사망을 빌미로 사람들을 무섭게 하여 속박 속으로 몰고 갔다. 사망의 종노릇하였다.

에베소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의 삶은 사망이나(롬6:23)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히9:27),

죽음에 대비하고 있는가? ★★★

인생은 물과 같다. 이전에는 도자기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담았다. 주전자가 깨지면 물이 다 흘러 나왔다.

지금 우리 역시 몸이라는 주전자 속에 인생이라는 물을 담고 있다. 언제 몸이 깨질지 아무도 모른다.

죽은 다음에는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다. 이생에서 해야 한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물 항아리를 받았다가 놓쳐서 깨뜨렸다.

다시 담지 못한다. ★★★

솔로몬은 인생을 은줄이라고 표현했다(전12:6).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데 끊어지기 쉽다. 쇠줄이 아니다.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단점만 보고 화목하려 하지 않는다.

내일이면 우리의 인생이 앞질러진 물과 같이 다시는 담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오늘 화해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 준다. 둘이 격리되어 있다.

둘 사이에는 갈등이 놓여 있다. 공의로 인해 분리되어 있다.

본성의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신다(롬1:28-32).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쫓겨난 자녀이다. ★★★

압살롬의 경우처럼 스스로 죄를 짓고 추방당한 존재이다.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율법의 심판 아래 놓인 쫓겨난 자녀이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본래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

금속과 금속을 매끈하게 갈면 서로 붙는다. 그런데 중간에 흙이나 먼지가 들어가면 떨어진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사59:2).

방법을 고안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인, 압살롬과 같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다.

언제 죽어도 평안, 언제 예수님 오셔도 평안,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쫓겨난 자가 영원토록 추방되지 않도록 방법을 고안하신다. ★★★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도 죄인을 그리워하신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살인할 의도가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 도시로 도망가게 했다. ★★★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방법을 고안하신다.

다윗은 공의를 저버리고 결국 공홀을 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을 택하셔야 했다. ★★★

그것은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다윗의 용서를 받은 압살롬은 메신저의 소식을 듣고 평안히 집으로 올 수 있었다.

목사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소식을 알리는 자이다. ★★★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 ★★★

결론

사람은 다 죽는다.

때를 놓치면 옆질러진 물과 같다.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오늘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분리되어 있는가? 화목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은 방법을 고안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한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우리는 창조물이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